

은총: 중심 주제의 다른 반쪽

웨슬리 신학의 역동적이며 복잡한 중심 주제는 물론 거룩함뿐 아니라 은총도 포함한다.

하나님 홀로의 사역과 신-인 협력론

학자들은 종종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웨슬리 실천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이 구속의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웨슬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이라는 설교에서 은총을 협력적인 것으로 보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설교에서는 아주 접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칭했고, 실재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홀로의 사역으로 생각했다.

웨슬리의 신학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는 신-인 협력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일한 활동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주장에 동일하게 강조되는 좀 더 넓은 접속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은혜를 입음과 능력을 힘입음

은총에 대한 웨슬리의 강의의 개념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접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이라는 주제이다. 웨슬리는 먼저 은총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 풍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빛을 진 분이 아니고 선한 의지와 사랑을 모든 피조물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할 뿐 아니라 은총이 선물임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은총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의롭다 함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거룩함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며 새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자들이 웨슬리 실천신학의 통합적 구조인 은총을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경우, 종종 법적의/치유의 축에 기초해 설명했다. 이 구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은총은 기본적으로 칭의의/법정의 주제와 상응하고 하나님의 힘있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은총은 신생과 온전한 성화와 같은 참여적 주제에 상응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구조는 웨슬리 실천신학이 갖는 복잡한 특성과 미묘함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수혜와 응답

신학에서 패러다임이란 때때로 여러 신학적 요소들을 평가하는 배타적 방식으로서의 거대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웨슬리의 신학을 절충신학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웨슬리의 실천신학이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어떤 특정유형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와 오늘날까지도 웨슬리 신학은 대체로 신-인 협력적 모델로 여겨 왔다. 그러나 웨슬리는 가톨릭의 협력 패러다임과 개신교의 협력 패러다임을 종합하여 구속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주를 섬기고 하나님 홀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순간과 과정

전체적으로 웨슬리 실천신학에서 특별히 웨슬리의 이해나 은총의 시간적 차원은 종종 연대기적 방식으로 탐구된다. 특히 그의 언어사용을 주밀하게 살펴보면 웨슬리 신학의 시간적 차원은 구원론적 방식을 믿음과 활동의 보다 더 큰 주제에 대한 성찰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간적 요소들은 구원론적 역할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서적 구원의 길”이란 설교에서 웨슬리가 유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관찰해보면 온전한 성화와 관련된 시간적 요소들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가톨릭 패러다임이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할 수 있다면, 구원의 현실화와 실현의 순간을 강조하는 개신교 패러다임은 온전한 성화 그 자체를 조명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종합하여 웨슬리의 특성을 나타낸다.

웨슬리는 개신교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개념과 가톨릭의 협력적이며 책임적인 은총개념을 포용할 뿐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해했다.